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尊制)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경축 84회 성탄절

# “구세주는 인류의 참 스승이다”



누구에게나 웃는 모습으로 대하시는 조희성님

취직 공부와 일자리 마련만이 스승의 책무로 생각하는 풍토가 개탄스럽다. 그러다보니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참다운 인간의 진면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세상을 제도하는 입장에 있는 학문과 종교는 한쪽에 서서 나 몰라라 뒷집만 지고 있는 세대가 되었다. 삶의 꽃대가 되어야 하는 기성세대의 잘못된 삶을 따라 자라나는 세대는 오직 돈과 지위, 명예와 권력만을 최고의 삶의 목적과 가치로 여기게 되고 따라서 잘못된 인생관을 낳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풍조는 앞으로 더욱더 사람 살기가 어려운 비정한 세상이 될 것은 불 보듯

환한 일이다. 이러한 시대를 당면하여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세상을 바로잡아 줄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의 자격과 역할과 그 의의를 조명해 보는 것은 실로 시대적 요청에 따른 선결 과제가 아닐까. 과연 이 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스승이 있다면 인생의 정도(正道)를 벗어나는 이 세상을 향해, 과연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가를 진지하게 살펴보자.

### 스승의 자격

선생이란 학교에서 문자나 학문을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분을 일컫는다. 하지만 스승이란 인생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와 인생길의 참다운 이치와 원리를 가르치는 분이라는 점에서 선생과 그 자격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는 것보다 수학의 공식과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는 데 큰 비중을 둔다. 물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참되고 바르게 살아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 및 삶의 근본 이치를 가르친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뿐이며 이론일 따름이다. 왜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그 명백한 과학적 원인과 이치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문의 근본을 모르고 흉내만 내는 연기 배우에 불과할 것이다. 진정한 스승은 인간이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통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아는 것이 착하고 바르게 살 이유임을 해명해 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실제로 그 길을 앞서서 가는 자여야 한다. 말로만 그럴듯하게 얘기해 놓고 자신은 사뭇 길로 간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승리제단의 조희성님은 인생이 본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이 현재 인간 속에 양심으로 존재하고, 지금은 죄의 노예인 상태가 인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나 죄의 범거지를 벗어나고, 온전히 양심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신다. 또한 죄가 어떻게 인생에 들어왔으며, 그 죄가 인간 어디에 존재하며, 그 죄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를 통쾌하게 답변해 주신다. 그리하여 죄와 악이 없어진 인간의 상태는 말할 수 없는 희락과 행복 속에서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다고 확실한 믿

음과 소망을 주신다.

인생이 그토록 원하는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 낙원에서 영원무궁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는 이런 스승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 스승의 역할

우리 인생을 흔히 생로병사가 있는 고행의 바다를 표류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피안의 지상낙원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가엾은 처지의 인생이라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험에 빠지고 죽을지 모르는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기서 스승은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피안의 지상낙원으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맡은 자를 말한다. 때로는 짙은 안개가 방향을 잃게 만들고, 험난한 파도가 우리를 위협하고, 태풍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미친 듯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능수능란한 경험과 지혜로 우리를 안전한 그곳으로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선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유능한 선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여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인류를 피안의 지상낙원으로 인도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해 본 사실이 없다. 만약 있었다면, 우리 인류는 벌써 그 피안의 언덕을 향해 뱃머리를 돌려 나가고 있었을 테고 먼저 도착하여 우리를 마중한 사람도 있었을 테니 말이다. 우리가 목적인 지상낙원을 향하여 안전하고도 믿음직스럽게 안내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의 역할을 맡은 자라 할 것이다.

### 스승의 존재 의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안의 언덕을 향해 나아가는 그 향해 길은 너무나 멀고 험하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거기에 이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목적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도 못하여 알 수도 없다. 오로지 그 피안의 지상낙원을 눈으로 직접 보고 누려본 경험 있는 유능한 선장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힘이 들고 지쳐서 때로는 목적을 상실하고 좌절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그럴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42)

### 경축 84회 성탄절

#### “84회 탄신일에 저희 모두 성심껏 경배드립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접붙임이 된 자라하면 한몸이 되는 고로 이 사람의 생일이 곧 여러분의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기해서 새싹이 돋는 것처럼 새 생명을 해야, 이 뜻 깊은 날의 의의가 되살아나는 것이지,

세상의 무슨 기념행사처럼 허례허식으로 움직여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갱생일(更生日)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는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더욱더 자유율법을 지키는 데 매진하도록 하세요!\*

### 구도의 길

## 사랑을 무례히 행치 말라

우리 승리제단은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부처님)이 되는 도(道)를 닦고 있는 종교단체다. 승리제단에 온 구도자(求道者)들은 하나님으로 거듭나고, 성불(成佛)하기 위하여 자유율법을 지킨다. 자유율법이란 구세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승리제단의 계율이다.

자유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픈 듯이 여겨야 하고,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내가 저지른 것처럼 여기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 또한 형제가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면 그 안타까운 사정을 내 사정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자유율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가장 최고로 사랑함에 자유율법은 타인을 바로 나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요구하니 과연 이보다 더 사랑을 강조한 율법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 자유율법은 고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규범임을 알 수 있다.

자유율법을 세밀히 지켜나가기 보면 무슨 일을 당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특히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나 친구관계와 같이 친밀한 관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해해주겠다’ 하는 마음에 쉽게 자유율법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이는 ‘사랑을 무례(無禮)히 행하지 말라’는 자유율법에 걸려서 그렇다. 사랑을 베풀 때도 예(禮)가 있다. 예를 벗어나는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다.

승리제단 수행자들은 자유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자유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감당해야 한다. 사랑을 무례히 행해도 그 대가가 있다. 아무리 상대방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도 예(禮)를 범했기 때문에 뒤달이 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인과법칙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 더 나아가 높은 단계에 올라간 수행자가 대자(大學) 자유율법을 어기게 되면 세상에서 대형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악령(惡靈)을 정화시키는 필터기능을 승리제단 수행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자유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공기가 달라진다.

자유율법을 닦는 수행자들은 율법 지키기를 자신의 목숨 지키듯 해야 발전이 있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자유율법으로 먼저 규율하고 행하여 한다. 그렇지 않은 수행자는 항상 배 밑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 보탬이 없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하여 그 멀고 먼 향해 길에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다시 힘차게 재도약하게 하는 그 존재가 스승의 존재 의의가 되는 것이다. 그 옛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해 항해할 때, 그의 굳은 신념과 훌륭한 인도가 없었다면 결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였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세계 모든 인류는 국가와 민족과 국경과 종교를 초월하여 우리를 피안의 언덕에 이르도록 가르치시는 훌륭한 스승이 있는 승리제단을 향해 하루 속히 발길을 재촉하여야 할 것이다.\*

김주호 기자

## 본부제단 7월 지역 활동 시상

### 신순이 권사 3관왕 차지



신순이 권사가 상을 받고 있다

승리제단 신도회(회장 김삼육)는 8월 5일 구역장회의에서 본부제단 7월 활동 내역을 발표하고 우수지역, 구역 및 개인에게 시상하였다. 신순이 권사는 5지역회장으로서 지역 1등과 개인 1등, 구역 1등을 차지하여 삼관왕이 되었다. 신권사는 6월에는 개인 1등과 구역 1등을 차지한 바 있다. 지역 1등, 5지역(박철수 승사, 신순이 권사)

지역 2등, 4지역(윤봉수 승사, 이영애 권사)  
지역 3등, 3지역(김갑용 승사, 이순애 권사)  
구역 1등, 45구역 신순이 권사  
구역 2등, 11구역 안경미 권사  
구역 3등, 38구역 김정순 승사  
개인 1등, 신순이 권사  
개인 2등, 안경미 권사  
개인 3등, 김정순 승사 \*

본지 지난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